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sfem.or.kr

Day Dream

JOINT MEMORIX, Jim Morrison



2003. 03

특집 Cyberspace is a Battleground!

기획 반 문화 反 문화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TV에 빠져들기 전에

당신이 명심해야 할 두세가지 것들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자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낮에도 꿈을 꾸는... Day Dream

2002년, 떡볶이 수다가 있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학내에서 묻혀져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년 뒤 2003년.
예전보다 진지해지고 밀도있어진,
그렇지만 여전히 즐겁고 유쾌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DayDream.
금세 잊혀지고 마는 한 자락 공상이 아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부딪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갈고 치열하고 행복한 '꿈' 이기를
당신과 함께 소망합니다.

DayDream [didrm] (명사)

1. 백일몽 : 한낮에 꾸는 꿈

2. 공상

3.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학생회 일/박/만/조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2003. 03 Day Dream

CONTENTS

02 특집 | Cyberspace is a Battleground!

요모조모 사이버 공간 알아보기 • 2

사이버 성폭력 • 6

오갱끼데스까 in cyber space? • 8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불쾌함을 감수하라 • 12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공간 • 16

20 기획 | 반 문화 反 문화

대학 공동체가 상실한 정체성의 기원 : 반 • 20

나는 그곳에 있었을까? • 22

KEYWORD로 본 반문화 - 술/자/리 그리고 깃/발 • 24



28 여성학 서평 | 성적 욕망 vs. 성적 폭력, 벗어나기와 함께하기

30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 TV에 빠져들기 전에 당신이 명심해야 할 두세가지 것들

32 여성사 | 왜 여성사인가?

34 남성이 바라본 세상 | 남자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38 이걸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1 | 나의 변태선생 이야기

40 만화 | W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속도도 빠르다고 하지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현실의 권력 구조와도 떨어져 있다고 하지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공간,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공간.

광명/현기/요?

지금, 여성에게 사이버 공간은 열려 있는 곳일까요?



요 모조모 사이버 공간 알아보기

수많은 사이버 공간들

대학생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에게 날아온 메일을 확인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가끔 심심하면 새로운 사이트를 찾아가거나 채팅을 할 겁니다. 온갖 기존의 인맥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인간관계는 기존의 관계들에 폭폭 때려 숨 막히던 이들에게 신선한 산소와도 같고, 이미 파탄난 기존의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애늬한 안식처가 되며, 사람을 모으지 못해 힘도 못 모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동지들을 만들어주는 곳¹⁾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어찌면 모자랄 곳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우라고 내가 참여하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데 대한 반론이 수많은 욕설로 나타날 때나, 내가 생각하기에 불쾌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1) 웹진 연나네 24호 특집 '사이버 세상에 접속하라 -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재미있어할 때를 경험한 적이 우리는 분명 많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수없이 받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선 너무 일상적이라 민감하다보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보는 경우가 되버리곤 하니까요.

그런데 사이버 상에서는 할말 안 할말 피부어대던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난다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는 현실과는 다른 여러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범주로 묶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있는 특성들 중 첫째로 협동성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또는 정보를 공유하려 할 때 사람들의 협동성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사안에 대한 서로의 정보와 느낌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이버 공간은 지난 월드컵 이후로, 미군 장갑차 사건이 퍼져나가면서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 시위 - 거대한 오프라인 모임까지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16대 대선에서도 네티즌들이 만든 여러 사이트와 그 안에서 벌어진 토론들의 영향은 정치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군대 이야기에 이화여대 홈페이지는 난리가 납니다.²⁾ 또한 부산대에서 시작된 여성주의 웹진 월창 사태³⁾는 이미 캠퍼스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에서의 이러한 감소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던 강한 공동체 에토스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문화된 토론그룹이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냈다는 사실은 참여자들이 많은 생각과 관심을 함께할 가능성이 많았고 그만큼 공동체 안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상당히 매력 있는 특성입니다. 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인 제약이 많은 곳은 더더욱 그렇지요. 사람들은 평소엔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익명으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월창'

2) 얼마 전, 이화여대에 지난 9월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여성비하 및 성폭력적인 글을 올리며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던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3)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창'은 예비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의 신상정보를, 게시판 집단 공격 등 혹독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4) 에토스란 생각하고 표현하는 특수한 방식 속에 표현된 화자들의 가치관과 특성이다. (마크 스미스, 피터 플록, '사회행위의 전경과 위험' 453,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나년출판, 2001, 서울)



그렇지만 이런 익명성은 사이버 세계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좋은 측면만큼이나 부정적인 결과 또한 많이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든지 그는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람들의 언어를 공격하고 퍼올리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이 그 특징이 됩니다.

이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극을 이루는 특징으로, 사회에서 감히 낼 수 없었던 묻혀진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성질인 반면, 무엇이든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성질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안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은 단순하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며, 그 결과는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값싸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 줍니다. 관련된 정보를 거의, 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개적으로 올릴 수 있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속도와 범위는 부정확한 정보나 유포하지 않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게 하며, 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의 예토스는 공동체의 정보와 결론에 대한 도전을 저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⁵⁾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이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을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 사이버 공간이 구축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그룹간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진보적인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로 그 안에선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깨지기는커녕 더욱 강하게, 이유도 없는 '명제'로 변화하는 곳⁶⁾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바로 포르노입니다. 소위 가장 성공한 인터넷 콘텐츠로 불리는 수익 사업인 포르노는 인터넷을 통해 양지로 나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 여배우의 포르노가 한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1000만 명 늘게 했다는 농담 같은 말은 거짓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말이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날아오는 포르노 스팸 메일은 일상이 될 정도이지요. 그렇기에 여성들을 대상화시키고 사회악으로 여겨졌던 포르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익숙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실에서 묻혀진 여성의 목소리는 사이버 상에서 많은 힘을 만들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성들을 비하하고 들어갈 틈새를 주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남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들에게 가차없이



쏟아지는 성적인 욕설들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로지 '여자'이기 때문에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검색이나 성매매의 상대자로 여겨져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은 크게 협동성, 개방성, 익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성질만이 사이버 공간을 규정짓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특성'일 뿐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이런 특성들을 통해 더욱 공고하고 폭력적으로 한다면 있지요. 그리고 그 폭력은 바로 여성을 향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대안은 역시 여성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도록 사이버 세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의 이러한 특징들은 소수자들이 자신에게 좋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공간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성질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꾸리고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묻혀졌던 일상의 문제와 언론이 아니면 알려질 수 없었기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 있었던 사례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양날의 칼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 성질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공간은 크게 협동성, 개방성, 익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성질만이 사이버 공간을 규정짓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특성'일 뿐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이런 특성들을 통해 더욱 공고하게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지요.

5) 김지, 157
6) 김지, 157



사이버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응답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성폭력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또한 사이버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 대화실에서 >>>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전달
- 전자우편 >>> 성에 관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이나 쪽지(memo) 발송
- 게시판에서 >>>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
- 게시판에서 >>>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 /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관련된 (당신)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 오프라인에서 >>>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행동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어지고 무시할 수 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2.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개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 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가상공간에서의 일임으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1. 개인정보 관리

- ≡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2.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 ≡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와 대화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원치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3.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하세요.

- ≡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적 장소에서 만나세요. 당신이 어디 가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려주세요.

4.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하세요.

- ≡ 가능한 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 ≡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6. 기술적인 측면 - 프로그램쪽지/메일 수신거부, 특정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우편 삭제를 이용합니다.

7. 컴퓨터 기술을 습득합니다.

- ≡ 가해지는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하며,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

1.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2.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3. 대화실 등에서 온라인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4. 통신회사와 당신의 안전,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용자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신상에서 위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그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봅니다.
5. 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다면 블랙리스트/신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신공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합니다.

관리자는

1. 동호회, 모임마당, 네트워크 등의 운영자는 [반사이버성폭력 정책]을 채택하고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합니다. 만약 관리영역 내에서 온라인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를 탈퇴 시키는 등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 사이버성폭력 방지를 위한 툴(tool)을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 위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의 유형별 성폭력에서 사이버 성폭력 부분을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



오징어데스까 in cyber space?

오늘도 어김없이 메일을 확인하는 당신.

당신의 메일함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한 메일이 도착해있다.

발신인은 들어볼까한 여성의 이름, 그리고 수신인은

'오빠'인 메일 말이다. 한두 번쯤 그런 메일에 속아 본 당신이라면

당신은 공공장소에서는 '오빠~'로 시작하는 메일은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일을 열었을 때 당신을 당혹스럽게 할 '포르노 사이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아는 당신이라면 말이다.

당신의 감정은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성이 철저히 배제된 연구란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떤 연구에서 보여주는 주장과 근거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는 열지도 못할 포르노 사이트가 '사회학적 자료'로 채택되었다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어떤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그 자료가 필수적이었거나, 혹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전자의 이유라면 당신은 당신이 포르노 사이트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다른 예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억압을 이야기할 때 여성 할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장면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감정은 그 행위가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주제를 전달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자료가 후자의 이유로 채택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즉 연구의 흐름 상 불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며, 당신이 그로 인해 불편했다면 자책하지 말라. 당신의 감정은 정치적인 것이다.

다음은 지난 학기 한 사회학 수업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한 연구에서 '포르노 사이트들의 양적인 증가로 인해 성적으로 자유로운 담론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을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의 흐름 상 포르노 사이트들을 열람하는 것이 불필요 했으며 소수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포르노 사이트들의 양적인 증가는 몇몇 사이트들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한 포르노가 가지는 의미를 간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포르노에 여성은 존재하는가, 여성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모범답안쯤 될지 모르겠다.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시킨 채 여성의 '몸', '육체'만 존재하는 포르노 산업의 성장이 누구에게 성적으로 자유로운 담론을 가능케 할지 궁금해진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켜 놓고 관음증적 시선만을 보내게 하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당신은 정말 새로운 성적인 담론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가? 포르노 콘텐츠의 카테고리에서 당신은 정말 성적으로 다양한 취향을 만족하고 있는가? 누가 그 여성들을 인종과 나이와 체중과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하여 전시하고는 돈을 벌며 부른 배를 두드리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글기, 복사하기, 붙이기, 정보 공유?

사회학 수업시간에 접한 한 연구에 불편함을 느낀 당신은 평소에 자주 가던 사이트에 가서 당신의 불편함을 털어놓는다. 당신이 맘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은 당신과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포르노 사이트가 왜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었는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공감을 표시해준다. 또 누군가는 쪽지를 보내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며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격려해준다. 주위 사람들의 격려에 한껏 고무된 당신! 그 연구의 일원에게 그 수업의 사이버 강의에 '토론방'을 개설해달라는 메일까지 보낸다. 정말 용감해졌다.

그러하여 토론방이 개설되었고 용감해진 당신은 그다지 논리적이지도 못하게 그 연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불편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편감을 의도하지 않았고 또 연구를 열심히 했던 연구자들의 반론도 오간다. 당신은 반론이 많았지만 예상했었고 또 괜찮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문제제기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썼던, 투덜거렸던 그 글이 '수업 게시판'에 복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한다. 당신은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당신의 글이 글리고 복사되어 수업 게시판으로 날라진 것은 당신의 글에 불쾌했던 누군가가 당신이 '뒤에서 까댔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글이 복사되었음을 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당신이 이미 '토론방'에서 실컷 용감해진 탓이다. 당신이 자주 가던 사이트에 쓴 글과 당신이 토론방에서 쓴 글은, 당신이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듯이 내용은 동일하나 표현의 수위만 다른 글이다. 당신은 좀지에 뒤에서 까댄 나쁜년이 될 지경이 되어버렸다.



●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켜 놓고 관음증적 시선만을 보내게 하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당신은 정말 새로운 성적인 담론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가? 포르노 콘텐츠의 카테고리에서 당신은 정말 성적으로 다양한 취향을 만족하고 있는가? 누가 그 여성들을 인종과 나이와 체중과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하여 전시하고는 돈을 벌며 부른 배를 두드리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부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말은 이제 너무도 진부해서 눈썹 참고서야 나올만한 말이 되어버렸다. 정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니 당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나만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 만큼 할 수 있다고 했는가? 전제조건이 있었다. 마우스 클릭할 힘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억 하라. 당신이 별 힘 들이지 않고 마우스를 가져다대고 글머리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나온 그 글을 어떤 누군가는 울면서 썼고 또 어떤 누군가는 알아가며 쓴 글이다. 아니, 어쩌면 투덜거리면서 쉽게 쓴 글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신의 별 힘 안들인 노력이 누군가를 아웃팅 시킬 수 있으며 또 누군가의 의사권을 방해하고 있다. 당신도 역시 당신이 무심코 간 사이트에서 언젠가 당신이 다른 사이트에서 쓴 원치 않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출처에 나쁜년이 된 당신은, '정보공유'라는 대명제를 위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이에게 당신의 글을 삭제해달라는 메일도 보내지만 이미 그 수업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했음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청한다. 당신의 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글이 있는 사이트에서 이야기하거나 항의 메일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그 글을 쓴 곳은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이라는 곳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이 주제로 서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물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공유'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 앞에 당신에게 '당신만의 방'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인가.

오른쪽을 봐도 거기에는 익명만 있더라

당신의 '공개사과' 요청 이후 그 수업 게시판은 뜨거워졌다. 애초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이들은 당혹스럽고 불쾌해한다. 당신은 그들의 연구에 만지를 걸었을 뿐 아니라 세상엔, 정보화 사회엔(1) 당신의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정보공유하지 말라며 박박 우기고 있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의 글을 복사해온 이는 공개사과를 한다. 그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서로가 감정이 상했으며 당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자.

그러나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익명 뒤에서 머리카락도 안보여주며 꼭꼭 숨어 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당신은 아직도 익명 뒤에 숨어 있는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당신은 그 사람을 짐작해본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밝히기는 꺼려하지만, 할말이 많은 융감한 사람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는 꽤나 공격적인 성품을 지녔고 장황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독수리 타법은 쓰지 않을 것이며 1분에 500타는 거든 히 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치느라 어깨와 허리가 꽤나 아플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이 글, 저 글을 왕창 가지고 와서 연달아 붙여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에 때가 많이 묻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가부



장 이대울로기에 꽤나 잘 길들여진 사람인 것으로 짐작된다.

당신은 왜 이런 '짐작'만 하고 있는가?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여러 아이디가 보여도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쓰는지도 역시 알 수 없다. 이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이 자주 간다고 하던 사이트에서도, 자신을 밝히는 이도 있었지만 도무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발음을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욕하며 비꼬고 인신공격에 나섰다. 게다가 꽤나 부지런하다. 그런 일은 그

사이트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자칭 '마초쟁자'들이 모여 만든 '변태도원'이라는 곳에서도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인 당신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모양이다.

당신이 잘 모르는 누군가는 그 마초쟁자들의 변태도원이라는 당신이 잘 모르는 사이트에서 당신을 이야기하며 당신이 겪은 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열심히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당신이 짐작하는 대로 당신이 쓴 여러 글들을 모아모아 그 사이트에 붙여 보여주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마모시키고 있다. 당신의 글들을 발견한 당신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그는 워낙 익명을 좋아하는지라 당신의 신분을 감춰주려는 의도에서 당신의 이름을 p양으로 고쳐놓았는데, 아홉사!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한두 개는 당신의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 익명을 좋아하는 그가 당신의 익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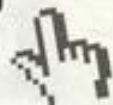
마초쟁자라니, 마초들도 융감하고 쟁자들도 융감한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초쟁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다. 게다가 요즘 쟁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만방에 과시하는 사람들이라 컴퓨터와 별로 친하지 않은 원시인 생활을 하는 당신과는 처음부터 싸움이 되질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기만의 방'에서 비방과 인신 공격성의 글을 지우기 바쁘고 마초쟁자들은 발도 넓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보인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다. 마초쟁자들의 사이트에서 p양 혹은 팽양으로, 사회과학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고 박박 우기는 것으로 알려진 당신, 게다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 되는 논쟁을 무시하고 있던 '연약한 p양'이 되어버린 당신, '변태도원'에서 그들이 뽑은 1등까지 먹어버린 당신은, 존재는 하지만 실체는 없는 익명들과 마주 서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남기

익명 뒤에 숨어있는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드러내지 못할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자가 생기면 그들 특유의 단결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마초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성주의자인 당신은 오프라인에서 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소수자인지 모른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당신은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신 옆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어 공격의 이빨을 드러내는 이들과 싸우고 있는 여성들이 있으며, 대상을 거부하고 주제로 서기를 희망하며 노력하는 여성들이 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이 주제로 서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물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공유'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 앞에 당신에게 '당신만의 방'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인가.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불쾌함을 감수하라



안정공은 가히 성폭력의 박물관
이자 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도 이야기의 내용은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다. 여타 다른 게시판에서는
토익 공부 할재할 사람과 동아리
새내기 모집이나 수업 정보 혹은 밥
맛있는 곳 추천 정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연애 체험담'과 '마법의 성'
만큼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굳이 실생활에선 잘 찾아보지도 않는 법률을 끌어들이며 쓰는 이유는 성폭력이 '범
죄'라는 사실을 너무도 망각하고 있는, 그 무지를 다시 고집내기 위해서이다. 유독
성폭력은 다른 여타의 범죄와는 다르게 '그럴 수도 있는 일' 혹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
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일이 많다. 이 말은 곧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피해를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마땅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
지는 일 또한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
실은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이 일탈적인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400호]

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자체가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가해자가 존
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빈번하게 일상 속에서 발생
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큰 '문제'
라는 것이고, 큰 '범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있거나 혹은 채
념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익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한다.

사이트 주소를 잘못 입력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사이트가 유명한 사이트라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
진다. 백만 개의 포르노사이트가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워도 팝업으로 뜨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가? 자
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르노그래피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껴본 적은 없
는가? 당신이 더욱더 여성이라면 무방비 상태에서 경험한 성폭력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해본 적은
없는가?

포르노그래피는 충분히 성폭력적이다. 포르노그래피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사이버 게시판에 올려
진 글 하나도 충분히 심각한 성폭력일 수 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신체적인 성폭력보다
덜 심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성폭력은 분명한 '범죄'이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혹은 그 이상
의 성폭력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경험
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애정
보공유게시판(이하 연정공)'이라는 공
간 안에서이다. 8000명이 넘는 회원수
덕분인지 하루에 올려지는 글의 숫자
또한 대단하다. 그리고 그 글들에 달리
는 리플 수 또한 엄청나다. 이렇게 많
은 연세인들이 그 공간에 모여서 나누
는 '정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때문에 쓰여 있는 글이다.
이 공간에서 공유되는 정보란 누구에
의해 누구로 전달되는 정보인지. 그리
고 그 정보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인
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밝혀준다. 그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 전
체를 싸잡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커뮤니티 전체가 잘못이라

연정공이 무엇이고?



여러분은 '연세대 정보공유' (이하 '연정공', <http://home.freechal.com/yonseishare>)라는 커뮤니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커뮤니티는 2002년 3월 9일 개설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메인페이지에는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단호하게 적혀있으며, 커뮤니티 소개 페
이지에는 '연세인들이 정보를 나누는공간입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정공에는 40개에 가까운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단과대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전공별 게시판까지 더한다면 100개에 가깝지요. 가장 기본적인 메뉴인 자유게시판과 익명게
시판을 비롯, 연애체험담, 연애게시판, 마법의 성, 성관계, 문화체험단, 공연 관람 후기, 앨범 리뷰, 도서 추
천 동원, Global Lounge(외국어로 글을 올리는 게시판), 신촌 가게 정보 등의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
듯 게시판 수도 매우 많고 그 종류도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익명게시판, 마법의 성, 연애
체험담 이 세 게시판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역시 익명게시판으로 일일 50~60편 가량의 글이 올라옵니다. 연애체험담에
는 30~40편, 마법의 성에는 10~15편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수와 종류, 업데이트되는 글의
양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학교 홈페이지(www.yonsei.ac.kr)의 자유광장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2만 연세'의
1/3에 달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 게시판의 이용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
긴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그리 오래된 커뮤니티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회원수는 이미 8천여명이 넘고 있
으니 '연세인들의 커뮤니티'로서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정보라는 것의 정체와 이야기되고 있는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익명게시판, 연애체험담, 마법의 성의 경우에는 익명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욱 심
각합니다. 음담패설, 남성의 섹스 경험, 자위 경험, 성매매 경험에 대한 공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상
아 이루어지는 논쟁 아닌 논쟁들, 여성에 대한 욕설, 지극히 남성적이고 여성 배제적이며 읽는 이에게 성적 불쾌감
까지 주는 이야기들이 '정보'라는 이름으로 번듯이 오고갑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질문'과 '답변'이라는
형태를 통해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의 즐겁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라, 읽기 싫은
사람은 안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말로 덮어버리려는 너무 '위험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공간



"작년 학내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사이버페
이스를 다루려고 하는데, 사건 자체가 여성 배제나 사이
버 따위 같이 암울하다 보니 좀 희망적인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이버에서의 가능성도 다루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내가 청탁 받은 바는 다
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사이버에 관한 여러 암울
한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글_조이여울 (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 일다 · www.ildaro.com)

얼마 전 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시겠조. 나
는 그제야 '아, 정말 사이버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이 대통령을 뽑는 세상이라고 말은 하고 다녔지만 미처 사이버와 나의 관
계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사이버로의 접속이 차단되자 당장 미
국에서 메신저를 통해 전해 받기로 한 중요한 데이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소속
된 단체에서 연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채 '이를 어찌해야 하나' 모니터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
죠.

나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단지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나의 행동에 도움을 주는 도
구 정도가 아니었조, 사이버가 차단된 리얼 스페이스는 아주 제한된 공간이었습
니다.

그렇게 '공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사이버와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100년 전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역사를 찾으러 도서관에 가지 말라. 여성의
역사는 벽 속에 있다"라고요. <자기만의 방>을 통해 버지니아 울프의 세계를 엿보던 때가 중·고등학
교 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나는 울프의 통찰력에 감동하면서 한편으로 100년 후 우리의
현실이 당시와 다른었다는 생각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 나는 벽 속에 갇혀있던 여성들의 역사가 이제 사이버 공
간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쓰여지고 있는
여성들의 역사는 리얼 스페이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다행인 것은 한국은 통신에 관한 한 그 파급력이 상당히 빨라서 사이버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이 잘 갖춰졌다는 사실이요, 인터넷이 일상으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엔 빈부의 차이와 지역별, 성
별, 연령별로 사이버 접근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다행히 빠른 속도로 형평을 이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이버스페이스는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리얼 스페이스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과 주장을 펼칠 마땅한 자리가 없조. 그러나
사이버 상의 어느 공간에서 우리가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어떤 경력이나 부, 나이나 이름,
수려한 외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이버에 자신의 집을 짓는 데에는 많은 지식이나 재산, 시간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조. 나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엄마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면서 난 우리 모녀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했
습니다. 사이버 세상이 열리기 전에 여성들이 쉽게 자신의 영역을 갖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두 사람은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꾸민지 가꾸어나가고 있는데 각자의 색깔을 발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방문
자들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여성주의자들은 사이버에 언로(言路)를 트기 시작했습
니다. 달나라말세포(dalara.jinbo.net)와 신경질(www.hysteriegirls.net), 주이쌍스
(www.jouissance.pe.kr) 등의 웹진과 다양한 페미니스트 카페가 생겨났조. 사이트를 열자마자 '예
비역을 도마 위에 올린' 월장(wallzang.net)은 몇몇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
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달나라말세포



웹진 월장



주이쌍스



연나네



사람들은 누구나 소통을 원합니다. 리얼 스페이스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과 여성, 고립된 이들은 더욱 그렇지요. 성 소수자들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성 소수자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에서 출구를 찾았습니다. 불과 수 년 만에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수백, 수천 개 생겨났는데 이 때문에 아마도 사회가 들쭉고 있는 것 같죠?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동안 자신의 존재를 불신하도록 배웠던 성 소수자들에게 다른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상담, 논쟁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는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간의 소통과 연대도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2001년 9·11 테러 직후 평화를 원하는 여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이버를 통해 결집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반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Women Against War)'는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연대에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WAW(www.kwaw.org)의

활동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여성들의 평화담론'은 각 개인의 머리 속에 묻혀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편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www.unninet.co.kr)에선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여성들의 힘을 모으고 여성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갖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여성주의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대화하며 다른 회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언니네가 처음 사이버에 등장을 했을 때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니네는 회원들이 내면의 이야기와 가슴 깊은 곳의 상처를 드러내고, 여성들의 독특한 감수성이 글쓰기에 묻어나고, 위로와 지지와 격려의 분위기가 흐르는 마을로 성장했습니다. 언니네가 갖는 의미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 표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되고 위축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일깨웠을 때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언니네는 앞으로 여성주의 공동체, 여성들의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실험하는 마을로 성장해나갈 것이지요.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사이버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리얼 스페이스처럼 남성들이 군림하고 마초들이 날뛰며 여성에 대한 학대와 비하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비주류를 위한, 대안적인 공간이라 자부하는 곳에서도 여성들은 소외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조차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기존의 잣대대로 검열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권력에도 우린 대항해야 합니다.

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여성들에게 리얼 스페이스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이슈를 발굴하는 작업, 여성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힘을 모으는 작업, 여성주의 담론을 사회적인 여론으로 확산시키는 작업, 그리하여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많은 여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도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 사람들은 누구나 소통을 원합니다. 리얼 스페이스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과 여성, 고립된 이들은 더욱 그렇지요. 성 소수자들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성 소수자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에서 출구를 찾았습니다. 불과 수 년 만에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수백, 수천 개 생겨났는데 이 때문에 아마도 사회가 들쭉고 있는 것 같죠?

총여학생회 3월 열린 세미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마초이즘과 여성배제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은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

- 조이여울(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 사이버 성폭력 누가, 어떻게 하는가?

사이버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과정

- 아원(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일시 : 4월 1일 6시

장소 : 미정

※ 총여학생회 열린 세미나/토론회는 여성주의/여성학 주제들을 가지고 매월 진행됩니다.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총여학생회(www.ysfem.or.kr)로 연락해주세요.



feminary & 북카페

open

북카페에는 200여권의 여성학 도서와 자료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책상(4석),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관 자료는 신분이 확인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람 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픈 다과회 :

3월 24일 월요일 1시

개관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월~금)



기획 - 반문화 反 문화

대학 공동체가 상실한 정체성의 기원: 반
"12년간 고생 많았어요"

옛날 반배치를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할 때쯤이면, 가장 큰 관심사는 새 학년에 반배치가 어떻게 되는지였다. 실은 애와 또 같은 반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친해진 아이와 다음 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기도 했다. 이 시기에 반이나 그 곳에 같이 소속될 친구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개인적인 소망은 더욱 컸던 것 같다. 마지막 날 담임선생님이 불러주던 반 번호를 들으면서 반 친구들과 아쉬운 이별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한 해 더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단짝 친구와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새학년, 새교실에서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 어색함 속에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익숙해져가는 것은 지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서 매년 반복된 경험이었다.

그런데 대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진학하게 되는 대학은 고등교육¹⁾ 기관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것이다. 대학을 몇 년 동안 다녔든 이제 막 신입생으로 대학을 다니든 상관없이 대학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난이도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초등·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기초 소양 교육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가방을 메고 책을 들고 캠퍼스를 걷고 있는 모습이듯,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건물, 한 교실 안에서 여러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과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듣게 된다. 그리고 비록 몇몇 필수 교과목이 있긴 하지만, 국영수로 정해진 체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나 과외학원에서 보았던 생활공간으로서의 교실은 대학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강의실은 정말 강의를 듣기 위한 공간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곳이다. 비록 늦었지만 대학에서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빼앗김으로써 학생으로서 더 이상 교실이라는 학업 공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대학은 더 이상 '교실 이데아'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있음'이 강제되는 단일한 공간과 이에 소속됨으로써 부여되는 정체성 - 고등학교의 교실을 생각해 보라

- 은 소속 공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대학생들²⁾ 에겐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대학생은 몇몇 만들어진 이미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기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집단이다. 전공이나 관심사, 생활 방식, 출신 지역 심지어는 생활공간도 상이한 대학생에게 단일한 정체성을 부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 공동체의
이데아를 체험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거나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성할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동체를 찾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에서 전공으로서 파는 대학 생활을 보내야 하는 공간으로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유대의 기원이 되었다. 대학에서 비슷한 주제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동일한 전공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같은 교실에 있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과 체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관심분야와 이해관계를 통해서 단일한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과뿐만 아니라 특정한 주제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들 또한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대학 사회의 개인화 경향 속에서 과 공동체 또한 위기를 맞이한다. 단지 같은 전공을 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형성된 과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정체성은 영향력을 상실한다. 동아리 또한 그 활동에 있어서



나 단대에 의한 소속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 사회에서는 단지 과가 반으로만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소속 구분이 여전히 적용된다. 몇십명이 아닌 몇백명의 사람들이 단일한 학부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학 사회는 반이라는 체계로 이들을 수용하게 된다. 반은 그 모습과 활동에서 예전의 과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하지만 외형적인 면에서 과를 계승하였지, 반은 더 이상 과일 수는 없는 공간이다. 반은 인위적인 분반배정 속에서 신입생에게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고 구성되며, 예전에 전공이나 수업과 관련해서 과가 수행했던 역할들이 반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새내기 맞이, 개강 파티, 대동제, 연고제와 같은 놀이 행사 이외에는 반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반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반 활동 자체보다는 반에 소속된 소모임이 잘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만 묶어! 단지 모이기 위해서 모이기는 싫다.

신입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반이라는 체계 속에서 대학의 자유로움을 시작한다. 물론 신입생으로 몇 달을 보내다보면 이 묶음이 그리 견고하지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대학 자체에 상대평가제나 성적순 전공승인 같이 더 이상 자유로움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쨌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반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한계적인 역할은 여러 활동에서 현실적인 위기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름만 남아 있는 친목 모임이 되어버린 동아리들을 보거나, 대동제, 연고제 때만 반 사람들이 나온다는 반 학생회장들의 체념적 말을 들을 때면 대학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고민은 더욱 복잡해지곤 한다. 분명한 것은 공동체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한다는 것이다. 단지 모이기 위해서만 모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잘못된 것들이 용인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의 출현: 학부제, 광역화에 대한 대응

96년부터 학부제가 시행되면서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신입생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2000년에 광역학부제가 시행되면서 광역화된 계열로 신입생들이 들어온다. 이젠 과

1) 대학교육(전통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과 대학원교육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공통된 성격은 ① 중등교육을 수료하고, 대개의 경우 어떤 형태의 선발시험을 거쳐 진학하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②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는 교육, ③ 학문연구와 밀접한 관련 아래 전문적 직업교육 기술교육 예술교육 교원양성 등을 행하는 교육, ④ 수료자에게 특정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주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점 등이라 하였다.

2) 어떤 대학인가나뿐만 아니라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친 후에 대학생이 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단지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선택'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획 - 반문화 反 문화

나는 그곳에 있었을까?

글_호를

나도 떠나버릴까...

이런저런 이유로 슬그머니 반방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혹은 일찌감치 마음을 못붙이고 떠나 버린 것이든, 반방을 가도 술자리를 가도 또 신입생을 맞는 행사를 가도 여자선배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자 선배들의 수는 줄어들어 버린다. 사실은, 나도 떠나버리고픈 적 많았다.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보기 싫은 꼴 보지 않고, 하고픈 말 참지 않아도 되는 '떠남'을 택하고 싶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난 그렇게 남아있으려 했을까.. 난 동기들끼리의 술자리에서도 소위 '홍일점'이 되는 때가 더 많고, 신입생 수련회



엔 어느새 동기도 선배도 없이 유일하게 '여자 최고 학번'이 되기도 했다.

내가 일찌감치 떠나버리지 못한 것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가 아닌 곳에서 내 자리를 만들 자신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어떻게든 이 곳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걸로, 실든 좋든 이 공간에 뿌를 묻어야 하는 걸로만 알았다.

외롭고, 또 그리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쪼쪼렷던 남자 선배들, 알아듣고도 같이 웃기보다는 못들은 척 해야 했던 이야기들, 술자리에서 내 여자동기들에게 춤추길 강요했던 어떤 선배의 생일파티, 어느 날 반방에서 '여성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허접한 농담거리로 삼던 이들,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면서도 화낼 상황인지 아닌지를 더 고민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그 때 나는 나 대신 화를 내 주고 그 '좋은 분위기'를 깨버릴, 그리고 자신은 어떤 더러운 꼴을 보며 살아왔는지 함께 신나게 수다 떨 수 있는, 언니가 그리웠다.

그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냈지만 적어도 내 후배들은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나만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내 자리를 만들어 그들 곁에 남겠다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때, 삶이 무료해지고 긴장이 사라졌을 때 주저없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언니가 되겠다고.

내가 힘이 되었니....?

내가 처음으로 선배가 되던 해 3월, 늘 밝게 웃으며 먼저 장난을 걸어오던 후배가 그날따라 우울하고 심각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꺼낸 이야기. 한 선배가 지나치게 자기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친한 척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역겹다고 했다. 낯설지 않은 상황에 낯설지 않은 이름.

일년 전 바로 그 선배의 스킨십 때문에 나도 꽤나 오랜 시간을 고민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후배는 내게 털어놓고, 나와 함께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적어도 나만큼 오랜 시간을 아파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분명 나는 그 애길 들어주고, 같이 화내고, 같이 욕하고, 내 지난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쓸모있었는지 아직도 자신할 수가 없다.

그 때 내가 해줬던 말은 기껏해야 '무시해버려라.. 차갑게 대해라.. 피해버려라..' 같은 소극적인 것뿐이었다. 나 역시 그 남자 선배의 후배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민하던 '선배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자기 입장을 전달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적어도 내가 그 선배와 동기였다면 좀 더 나았을 지도 모른다. 그때 그 남자 선배와 적어도 맞먹을 수 있는 언니가 그렇게도 절실했다. 그 후배가 날 여자 선배로 믿고 찾아왔듯이 나 역시 SOS를 칠 선배가 있었으면 했다.

아무도, 아무도....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반방 쇼파 끝에 뻗고서 걸터앉아, 어떻게 타이밍 맞춰 빠져 나갈까 고민하던 그 당시, 이미 그녀들은 일찌감치 그곳을 뜬 후였다. 아니면, 남자 선배들의 품평회와 갈굼에 자신을 갈들여버린 이들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나처럼 한 발만 담근 채 주류가 되지도, 아웃사이더가 되지도 못한 이들이 말을 잃어버린 채 숨만 쉬고 있든지.

학교를 떠나는 지금,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나는 과연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존재했었나? 그렇게 더러운 꼴 봐가며, 성질 버러가며, 속으로 삭히며, 꾸역꾸역 남아있으려 했던 '우리 오빠'에 나의 목소리는 있었었나? 지금 나는 시뮬레이션 남자 선배들의 농담에 싸가지없게 대꾸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여자 후배들이 반방에 나오지 않기로 '탈' 결심하고 있는가?

이것이 현실

우리 과에서 좋은 여자 선/후배되는 방법

- ① 담배 절대 피우지 않기
- ② 늦게까지 술마시다가 막차 끝길 때쯤 일어나서 빠져주기
- ③ 과 커피 절대 하지 않기
- ④ 체육대회 때 파전 잘 굽기
- ⑤ '선배'가 아닌 '오빠'라고 부르기
- ⑥ 절대 논쟁하지 않기 (전공에 관한 것 까지도)
- ⑦ 농담따먹기 할 때 말하지 않고 꼭 듣기만 하고 웃어주기
- ⑧ 돈없는 선배에게 모르는 척 밥 사드리기
- ⑨ 아프지 않기
- ⑩ 무조건 웃기

출처 : 언니네(www.unnine.co.kr)
가사나무님 자기만의 방

기획 - 반문화 反 문화

KEYWORD로 본 반문화 - 술/자/리 그리고 깃/발



'수'의 증가 = 'power'의 향상?! 웃기지 마!

갈수록 신입생들 중 여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엔 남학생들로 가득하던 강의실에 점점 여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띄인다고 한다... 그렇다. 여학생이 많아졌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1993년에는 단 24.3%에 그쳤던 학내 여학생 비율¹⁾이 처음 35% 선을 넘은 2000년 이후 계속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신입생들 중 여학생 비율이 37.5%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학내 여학생 비율은 40%에 달할 것이다.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학생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그들의 'power'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간혹 성급한 사람들은 학내에서 남녀차별적인 구조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일까?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살기 좋아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강의실에서마저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아지다니... 연세의 앞날이 어두워..."라는 망언(妄言)을 애정어린 걱정이라 여기는 교수님, "올해는 강의실이 꽃밭이라 수업할 맛 나겠어~"라며 오묘한 미소를 띄우는 교수님, 함께 공부하는 여학생들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남학생, 같은 조가 된 '저학번 여학생'에게 온갖 잡일을 떠안기는 남학생 등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으니, 강의실 밖의 상황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특히나 학내 공동체에서 여성이 온전하게 살아남기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남성 '장'과 그 '장'을 리더로 하는 무리가 중심

이 되어 꾸러지기에 공동체의 분위기 역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그 공간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과/반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가고, 과/반방에서 여자 선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다.²⁾

이렇게 여성이 배제되는 공동체의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술'과 '깃발'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 술/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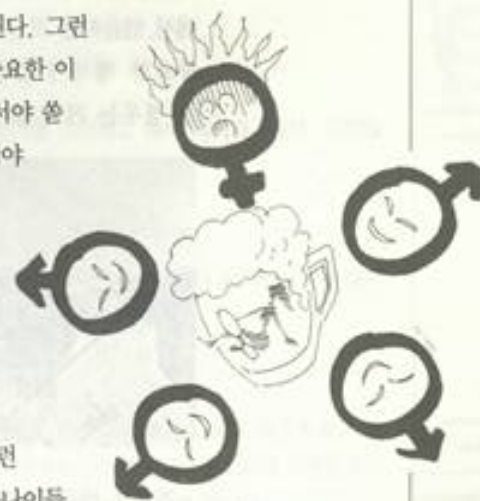
'불쾌한 술자리'의 문제는 하루 이를 제기되어 온 것이 아니다. 현재의 술자리 문화에 대해 자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식상할 정도로 자주 이야기되어 온 것이다—물론 그 고민의 내용과 대안의 방향은 모두 다르겠지만 말이다.

여성에게 있어 술자리란 많은 경우 '위험한' 공간이다. '성폭력 다발 지역'이라는 경고 표시판이라도 붙여야 할 정도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술자리이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웃어 보자고 하는—그러나 결국에는 남성들에게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온갖 음담패설과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들은 물론이거니와, 강요되는 것은 왜 이리도 많은지. "술은 예쁜 여자가 따라줘야 재미가 나지"라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와 함께 강요되는 술따르기, "마시다 보면 느는 거다, 오빠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강요되는 '원샷',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커피와 러브샷, 후키사, 후장미... 분명히 느껴지는 불쾌함을 어떤 방

법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래, 그냥 내가 참고 말자'고 입술을 꼭 깨물었던 기억들—아마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일 것이다.

특히나 대부분의 술자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불쾌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힘들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우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가 분위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불쾌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큰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술자리가 밤에 벌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일찍 집에 들어올 것'이 요구되는 여성들이 종종 소외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집에서 통학하는 다수의 여학생들은 "여자가 밤늦게까지 술이나 치먹고, 잘 하는 짓이다!"라는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학생들보다 먼저 자리를 뜨게 된다. 그런 데, 이상하게도 항상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성들이 떠나고 나서야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남성들만의 이야기로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그 자리를 떠난 여성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을 '조르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오고간 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짜나이를 끼리의 이야기'라는 벽은 점점 견고해지고 여성은 소외된다.



1) 1993년 각 단과대별 여학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 여학생처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women> 내 '연세 여성통계')

문과대학	상경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음악대학	생물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원주점	총계
46.2	5.7	24.2	4.9	23.8	17.9	12.4	72.8	91.4	37.2	15.4	32.3	99.8	23.3	25.4

2) 물론 학내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즐겁게 생활하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가 '여성'임을 부정하고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다. 우리는 '애들이 나한테 다 남자래, 아무도 날 여자로 안 봐'라는 말을 공동체 바깥의 누군가에게 너무 자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술자리만큼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없지.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된다니까!”라는 ‘옹호의 변’이 100%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성이 배제되는 공동체 문화의 구심점에 현재의 ‘술’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 남자만 드는거야? - 깃발

깃발은 공동체 내부인들에게 자신들이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도구이자 공동체 외부인들에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념을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단순히 ‘천’과 ‘막대’로 이루어진,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사물이 아닌 것이다. 힘차게 펼쳐지는 커다란 깃발에는 쉽게 저항하기 힘든 권위와 압도감이 내포되어 있다. 전쟁터에서 적의 깃발을 켜는 것 혹은 빼앗는 것이 승리로 여겨지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 연유하는 것일 게다. 큰 집회나 축제 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깃발은 학내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것이 신입생 합격증 배부일,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수련회, 1학기 대동제, 2학기 연고전 등이다. 지난 2월 오리엔테이션 때도 각 과/반의 깃발을 필두로 길게 줄을 서서 걸어가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학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행렬을 잠시만 유심히 본다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 서로 다른

과/반 학생들이고, 깃발 생김새도 각각 다르고, 학생들의 수도 다르지만... 각 행렬의 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신입생의 90% 이상은 남학생들이었다!

비단 오리엔테이션 때문이 아니다. 새터 때, 아카라카 때, 연고전 때... 대부분의 경우 깃발을 들고 흔드는 것은 남자 선배 혹은 남자 동기의 몫이며, 여성은 깃발을 든 남성의 뒤편에서 자신이 속한 과/반의 깃발을 힐끔거리며 ‘따라간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깃발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과/반/동아리에서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는 여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맨 앞자리를 항상 남성들이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남성들이 ‘힘이 세니까’ 든 것이었을까? 그 변명이 너무나 구차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무 근거없이 100% ‘우연’에 근거하여 생겨나는 일을 찾기로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연약한 여성들은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깃발이 많아서 남성들이 깃발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 자체가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끈끈한’ 의리로 뭉친 싸나이들이 공동체의 주류를 구성할 때 여성들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과 정체성은 ‘남성적인 것’이 되고, 그래야만 가치있고 훌륭한 것처럼 여겨진다.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불만없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다. 마치, 깃발을 든 남성의 뒤편에서 여성들이 선두로부터 많이 멀어지지 않으려고 걸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만드는 페미니즘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파
총여학생회와 함께하는 백만가지 방법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가본다. click! www.ysfem.or.kr

총여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행사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학 도서, 여성 관련 웹사이트가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성매매, 성폭력, 여성노동 등에 관한 자료들을 카테고리별로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aydream을 읽는다.

여성주의 매체를 내걸고 정기적으로 발행될 daydream을 꼼꼼히 읽는다. 페미니즘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총여에서 준비하는 행사들에 참여한다.

새내기 여성학 학교, 기말학교, 여성노동학교 & 메이데이 실천단 여/생, 여성학 강좌/세미나, 가을 여성제, 성매매피해여성 자립을 위한 ‘언니들에게 희망을’ 콘서트에 참여해본다.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ysfem.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해봐!

daydream 편집위원

매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참여할 수습 편집위원을 하세요. 여성주의 글쓰기를 고민하고 매체 제작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세미나는 필수!

feminary & 북카페 지킴이

북카페는 학생회관 3층 총여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성학 도서와 자료집 등의 관리하고, 여성주의 매체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고민을 한층 키웁니다.

‘언니들에게 희망을’ 콘서트 자원활동가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기획단에 총여학생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매춘화되고 있는 기부경제 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고민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7월 19일 연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재밌게 즐기고 고민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mpowering Feminism 공연팀

퍼포먼스나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취미 삼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강사 후추(지면 관계로 익명 생략)에게 배우고 여성주의 고민을 담은 공연 직접 합니다.

총여학생회 수습 집행부

직접 총여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참여할 수습 집행부를 찾습니다. 총여는 국별 구성이 학술교육국, 문화정치국, 복지국, 반성폭력팀, 여성노동팀, 온라인매체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캐서린 배리의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베티 도슨의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글 시바 (이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영어로 된 용어의 개념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우리 말을 찾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섹슈얼리티(sexuality)'이다. 성(性), 성성(性性), 성애(性愛), 성욕(性慾), 성적 쾌락, 성적 지향 등...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래서 차라리 발음나는 대로 섹슈얼리티라고 이름붙이는게 편한, 그 개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서구와 우리의 문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과도한 성적 이미지에 비해 성에 관한 논의가 빈곤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90년대 문학의 영역에서 등장한 성적 자유주의가 촉발시킨 마광수 식의 논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에 관한 논의는 성적 표현의 자유인가 혹은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폭력에 관한 제재인가라는 식의 쟁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우리는 둘 중 하나에 손을 들어야만 한다! 원하는 원하지 않는 간에 말이다.) 최근에 벌어진 요쿠르트 누드 퍼포먼스를 둘러싼 논쟁은 10여년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성적 폭력의 개념이 아직도 여성의 권리로 정립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역시 성적 논의를 풍부하지 못하게 한다. 성적 폭력을 증명하는 기준이 은연중에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아닌 여성의 정조가 되는 상황에서, 성에 관한 논

의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특히 여성의 권리에 반하는 성적 폭력의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여성주의적인 성적 논의는 주로 남녀의 성별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포르노 등에 관한 문제에서, 여성주의는 그동안 여성의 정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법담론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이 가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구조와 문화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별권력구조에 기반한 성에 관한 논의가 여성을 성적 관계에서 피해자화하거나 수동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여성의 자위에 대한 논의 등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표현행위들은 그런 맥락에 있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에서 성별권력의 위계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여성 자신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촌스럽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성별권력구조를 은폐시킨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현재의 한국 사회 안에서 성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섹슈얼리티를 고민할 때 우리는, 그 빈곤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맥락과 연결된 다층적인 차원의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두 개의 책들이 있다. 하나는 최근 번역된 캐서린 배리의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삼인, 2002)이며, 다른 하나는 베티 도슨의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현실문화연구, 2001)이다. 하나는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이며, 다른 하나는 자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캐서린 배리는 국제적인 성착취 반대 운동을 활발히 펼

쳐 온 페미니스트이자 여성학자이다. '여성매매반대연맹(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의 창립자이기도 한 배리는, 섹슈얼리티를 "권력의 문제"로 정의내리면서 매매춘을 연구하는 이유를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종속시키는 매매춘을 통해 모든 여성의 계급적 조건이 드러난다"는 것에서 찾는다. 즉, 성별권력구조가 계급화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가 매춘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자인가? 답: 섹스해 주는 기구, 여성의

권리가 인권인가? 여자가 인간인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배리는, 이러한 상황이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해 구성된 것이며 성별 위계질서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 책 초반부에서는 배리의 이론적 배경이 차분히, 그러나 강건한 어조로 정리되어 있다. 2장부터는 학자이자 운동가인 배리의 경력이 묻어나는 각각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에서의 성매매와 성착취 실태, 심대 성매매 문제, 성매매에 관한 국가 정책에 대한 리뷰에서부터, 성매매반대운동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조세핀 버틀러와 감금된 자가 감금한 자에게 가지게 되는 감정인 '스톡홀름 신드롬'의 주인공 패트리샤 허스트에 관한 글까지 다양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리의 이론적 입장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성별위계구조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배리가 다루는 영역의 방대함이나, 추상적인 이론 논의로 인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역자들의 엄포(?)에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유용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역자들의 제안에 따라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베티 도슨의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가 가지는 색이 배리의 것과 완벽히 보색대비된다는 것은, 베티 도슨의 경력을 봐도 알 수 있다. 여성주의 화가인 베티 도슨은 자위에 관한 세미나와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자위전도가"이다. 이 책에서 도슨은 "자위는 섹스이다"라고 선언하며, 자위를 통해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의의식과 자기혐오, 성기에 관한 열등감과 수치심, 여성 욕망의 편견과 길들임을 극복하고", "우리의 에로티시즘을 발견하는 길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 존중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한다. 다양한 여성의 성기를 스케치하여 전시회를 열었던 도슨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성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몸과 몸이 가진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성애적 삽입 섹스만이 섹스의 전행이 아님을, 자위 등을 통한 다양한 에로틱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드러낸다. 도슨은 자위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실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통해 기존의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를 극복하기를 주장하는 글로 시작하는 이 책은, 도슨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위 세미나를 진행한 경험, 그리고 자위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 또한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책을 읽은 후 각지에서 보내진 독자들의 편지를 통해 긍정적인 여성 섹슈얼리티가 구성가능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 자신의 작품까지도 실고 있는 이 책에는, 어머니들에게도 선물하라는 도슨의 점잖은 충고가 실려 있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포르노 등에 관한 문제에서, 여성주의는

그동안 여성의 정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법담론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이 가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구조와 문화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다.

실제 배리와 도슨의 책 모두 각각, 섹슈얼리티를 성별위계구조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적 욕망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는, 그리고 성적 욕망에 대한 긍정만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책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입장을 완결된 구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러한 입장이 성립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책들 모두에 존재하는 행간의 맥락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성적 논의판에서 귀결될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두 개의 책을 잘게 씹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상의 폭을 넓혀보는 건 어떨까?

철칙 1

이성애를 의심하지 말라

TV왕국에 입장하기 전에 명심할 것은 그곳에서 이성애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보기 전에 우리는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서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왜 그들은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의심하지 말라.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고 그런 커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은 '여성적'일 때, 남성은 '남성적'일 때 가장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여성적임, 혹은 남성적임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들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헛갈린다면 몇몇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떠올려보라. 답이 쉽게 나온다면 당신은 TV왕국에 진입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된다. '천생연분'의 게임에서 여성 파트너를 반씩 들고 힘든 내색 없이 리모 게임을 하는 남성출연자들의 남성적인 매력을 떠올리고, 너무도 가벼워 보이는 몸으로 종종 색시하게 종종 청순하게 웃으며 남성 파트너에게 '내조'하는 여성 출연자들의 모습이 기억난다면, 그리고 그 장면에 아무런 의문도 들지 않는다면 합격이다. 가장 전형적인 이성애의 코드를 공유하라. '아내'의 김희애가 실종상태인 남편 유동근을 7년이나 기다렸, 기다리는 여성의 마력을 떠올리고, 역시 같은 드라마의 엄정화가 기억상실증에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유동근을 7년이나 보살피며 한결같이 사랑하듯 순박한 여성의 사랑을 떠올리면 이 모든 관문은 넘긴 셈이다. 이제 TV를 틀라.

철칙 2

'언제나' 이성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이성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이성의 파트너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끊임없이 만들 노력을 하라는 의무가 TV왕국에서는 부과된다. 우선 '천생연분'이나 '장미의 전쟁' 같은 짝짓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성을 만나 커물을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섹션TV 연예통신'이나 '연애가중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혹은 다양한 토크쇼의 유도심문과 해명 등을 통해 실제로 자신이 어떤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지지 못했는지 공개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현실 공간에서의 진지한 연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TV왕국에서 이것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그 세계의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언제나' 이성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라는 계명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규율로 이어진다. 앞에서 말한 다양한 기회들이 TV왕국에는 존재한다. 이 모든 기회들을 이용하라. 주접이든, 이시돈이든, 알팔렉이든,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해 이성의 파트너를 사로잡아라. 만약 경쟁자가 있다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매력에 호감을 얻기 위한 아무도 서슴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성의 파트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원가 부족할 확률이 높으며 매우 즐겁지 못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이다. '논스톱3'의 다나, 하하, 효진은 그런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술친모술로'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역시 커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언제나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 '논3'의 효진처럼 머리를 형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철칙 3

관계는 절대로 일대일이어야만 한다

이성에 커물의 종착점은 결혼이어야 한다. 이것은 TV왕국 대대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규칙의 하나이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알려져 있고, 당연히 일대일의 파트너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종착점이 완전한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이다. 드라마 '아내'에서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다 정보석과 재혼을 결심한 김희애에게 새 아내 엄정화와 함께 살고 있는 유동근의 존재를 정보석이 알려 주면서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일대일의 파트너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우리는 유동근이 과연 어떤 '아내'를 선택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선택한다는 것은 일대일의 파트너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다. 처제가 형부를 사랑하는 '논스톱' 역시 일대일 이성애 관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공효진을 사랑하는 김래원은 이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두 여자와 두 남자, 일대일 대응관계를 성립하게 할 수 없다. 언니인 오연수가 죽음으로써 이 희망은 또다시 사라진다. 일대일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이라는 성공적인 종착점을 위해, 그리고 그 유지를 위해 관계는 절대로 일대일이어야 한다. 물론 그 관계에 생겨나는 혼란들은 TV왕국의 또 다른 흥밋거리이다. 파트너에 대한 감박증 때문에 병세는 점점 깊어간다.

추신

TV왕국에서 정신분열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일대일의 연애관계를 은근히 조작하면서도 그 종착지라 흔히 생각되는 결혼의 파국들을 또한 자주 소재로 삼는 TV는 그렇다면 정신분열인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천생연분'과 '논스톱'이, 혹은 '장미의 전쟁'과 '아내'가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성애 커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커물을 만들 것을 강요하는 한편,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모든 일보다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의심할 수 없는 진리처럼 이성애 커물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 TV 왕국에선 말이다.

TV왕국 안에서 우리는 일대일 관계를 찬미하는 이성애자이어야만 한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갈갈이 찢길 것이니, 그 관계를 부디 신성하게 여기어라.

TV에 빠져들기 전에 당신이 명심해야 할 두세가지 것들

당신은 지금 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연애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한 사람 이상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근심에 빠져야 합니다.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매력 없음에 대해 근심해야 하고, 한 사람 이상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근심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근심이 싫으신 당신에게 단 한 사람과 뜨거운 연애를 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우리 TV왕국이 당신에게 원하는 살 길입니다. 당신의 남성적인/여성적인 매력으로 그녀/그를 사로잡으십시오. 아,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성(異性)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일대일로 만나 연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글_ 평가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석사과정)



왜 여성사인가?

어렸을 때 한번쯤은, 그 혼란 위인전 가운데 왜 여자 위인을 다른 것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지 궁금해 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남성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만한 분야 - 즉, 정치나 종교, 예술 등 - 들을 독식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역사 자체가 지극히 남성을 위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중요한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 당연히 여자 위인들이 몇 명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몇 명 없는 여자 위인들마저 성녀가 아니면 여걸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만을 갖고 있다. 잔 다르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본다.

어쨌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연구되고 저술된 'History'에 비해 'Herstory'는 그 작업 자체가 창조적인 모험일 정도로 아직까지 낯설기만 하다. 이런 분야를, 더구나 역사학 전공자도 아닌 내가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일지 모른다.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글들은 '여성사를 새롭게 바라본다'는 거창한

수사보다는 재미있거나 안타까운 옛 여성들의 이야기, 혹은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제시되는 여성사 이해의 작은 단서 정도로 읽어 주시면 좋겠다. 다만 여성의 역사에 꼭 빠져 공부해 본 짧은 지식을 가지고 기존의 시각에 관하여 '이건 아니다'의 기준은 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본 칼럼에서 배제하게 될 몇 가지 사항들이다.

흔히들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쓴다. 거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왜곡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요, 어느 한쪽만 비춰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너그러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여성사를 다루고 있는 여러 서적들이나 TV 프로그램들은 그 '꼭'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내가 느낀 문제이다. 남성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여 역사가 쓰여지고 이해했던 과거에 비해 늦게나마 여성의 역사가 조명을 받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인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여성사에 관한 대중적 담론들은 지나치게 적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전자의 경우는 역사를 통틀어 그다지 많지 않은 여자 위인들을 추켜세우며 '여성도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성의 영역에서 어렵게 그 자리를 차지한' 여성들(쉽게 말해 남성화된 여성)만이 부각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 속에서의 그녀들의 역할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몇 안되는 여자 위인들은 가부장 사회에서 말 그대로

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쾰리 부인이나 섣달 여왕의 삶이 여성에게 학문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20세기 초 유럽의 과학분야나 남자 후계자가 없을 때에만 여왕을 두었던 신라 왕조를 양성평등적이었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의 사가들은 지극히 드문 몇몇 여성의 케이스를 확대해석하며 '알고 보면 과거의 여성들이 생각만큼 차별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일쑤다.

후자의 경우는 역사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자체를 왜곡시킨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요,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라는 식의 보조적인 존재로만 여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신사임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의 경우 아무래도 그녀가 시나 미술에서 보인 재능보다는 '이율곡의 어머니'라는 점이 더욱 강조된다. 그렇지만은 없다고 반문한다면 왜 위인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러한 시각은 부정적인 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에 기생하여 정권을 좌지우지한 '요부'도 그 권력의 주체인 남성과 관련되고 나서야 역사 속에 등장한다. 결국 현모양처와 요부를 규정하는 틀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칼럼은 역사 속의 '특정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성의 역사를 다룬 책들 중에는 흔히 역사를 바꾼 여성이나 남성중심사회를 개혁한 여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많은데 그런 식의 전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한 인물에 대해서 좀더 나쁘다로 쉽게 평가를 내리는 일 자체가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한 것이다. 또한 여성사를 지나치게 인물 중심으로만 살피다 보면 '예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울 뿐더러 그녀들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된 과정 자체에 남성들의 평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더구나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여성들 대부분은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여성대중'의 삶을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 칼럼의 어디에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겠냐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여성들만 다룬다면 맥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가부장제와 맞서 싸운 우리 선배 여



성주의자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자와 여성주의자가 아닌 여성들을 양분하는 것도 '예외'라는 함정을 만들기 쉽다고 생각했다. 'Feminism'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이다.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세상에 여성들이 처음

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지만 그것이 여성사의 처음은 당연히 아니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거울을 통해 왜곡된 모습을 비춰보다가 이제 여성 스스로가 제대로 된 거울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골고루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코 특별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 모르는 옛 여인들의 눈물과 웃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울 말이다.

1년 전에 나는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에서 여성의 역사를 주제로 칼럼을 연재했었다. 10화에 걸친 그 때의 글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이야기의 소재를 조선시대 여성으로 한정짓고 말았던 점이었다. 조선시대 여성, 특히 조선 후기 여성이 가장 차별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였지만 그 역시 역사학자가 아닌 나로서는 정확한 부분이 아니다. 심증일 뿐이다. 때문에 그 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칼럼에서는 통사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하겠다. 즉, 어느 한 시대에 치우치지 않고 삼국?고려시대부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여성들의 삶을 치우침 없이 골고루 탐색해 보겠다는 뜻이다. 그녀들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것을 꿈꾸었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거울 앞에 서는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글 무름

(해남살현의 고향 강릉에서 태어나 여성주의를 이는데 20년이 걸리고 나를 조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25년이 걸린, 이래저래 느려진 자칭 여성주의 사학자. 좌절의 역사에서 희망의 미래를 발전하기 위해 오늘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타임머신을 타고있다.)



남자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 그들과 나의 이중성에 관하여

A : 아, 저기 괜찮은 여자 간다 야.

B : 어디? 오오 괜찮은데, 그런데 내 타입은 아냐. 난 저기 저런 애.

A : 앓, 재는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은 좀 그렇네..

B : 저기 재는 어때?

(잠시 후)

A : 아 당구 치는 것도 지친다. 야 캠방이나 가자. 그래, 스타크 어때?

B : 나 스타크는 잘 못해. 워닝 알레본하자

A : 뭐 그래.

(잠시 후)

A : 아하하~ 내가 이겼네, 이제 넘 힘든 걸.

A·B : (침묵)

A : 아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네. 돈도 떨어지고

B : 그래 그렇네. 내일 학교에서 보자.

글 콰이

(이성주의를 통해 나를 비롯한 남성들이 그 권리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것을 갖고있고 싶습니다)

내가 대학 들어와서 겪은 남자친구와의 일상을 압축해보았다. 막 입학해서 처음 보는 남자애들을 물어줄 수 있는 것은 그 폭발하는 미팅과 소개팅에 대한 갈망에 더하여 여자 애기, 오락이나 스포츠, 각자의 취미 애기 혹은 간혹가다 정치권에 대한 애기였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는 스포츠 등을 통한 경쟁의 관계, 농담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 내리려는 시도 -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별명을 어찌나 그렇게 잘 짓는지 별명이 없는 애가 없을 지경이었음, 이상 별반 없었다. 그리고 오락이나 공부 애기, 여자 애기가 끝나면 왜 이리 할 애기가 없었는지,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그 애기 소재만으로 그 기나긴 몇년을 채웠는지, 상을 쥐야 할 것 같다.)

대학 들어와서도 그리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 남자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특히 소수이면 소수일수록) 왜 이리 서먹서먹한지, 침묵을 줄이려면 무언가 해야했다. 그 때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게임방을 가고, 당구장을 가고, 돈이 넉넉하면 영화를 보거나, 적당히 각자가 취미가 있는 활동을 함께 하였다. 그러한 시간들은 익사이팅한 재미는 있었지만, 무언가 조금은 삭막하고 허무함이 남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돈도 떨어지고 헤어지지 못(?)하면,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대화는 대학 초년생 답게? '어떻게 해야 여자 친구를 사귄다'로 시작되어, 때로는 대학생 답게? 고급수준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과 선택의 고민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대화는 비개인적이었다. 나는 정치, 스포츠 애기 등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아는 바도 없어서 대화가 답답하기도 했다. (특히 거의 온 남자애들이 열광했던 스타크 애기를 할 땐 정말 난 판 세계 사람이었다). 결국 더 이상 할 애기가 떨어졌을 때는, 술을 계속 마셨다. (난 술도 잘 못하는데, 줄창 술만 마셔대면 대체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남자들과의 시간은 흘렀다.

생각해보면 말이지, 대학에 들어와서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친구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대중 사는 동네만 물어볼 뿐이지 서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것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팅, 소개팅하면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좋아하는게 뭐예요' 등등 물었던 나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렇게 지내는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았으며, 정서적으로 큰 유대감을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남자친구들과 형성된 관계는 같이 수업을 듣는 등의 매개가 없어지면서 대부분 무너져 버렸다. 결국 나는 남자는 독립과 고독으로 운명지어진 존재이었던 것인가 라는 소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

정말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무관심과 억압에 놓여 있을까.

어느 베스트셀러에서 나온 것처럼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길

원할까.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리다. 남자들은 남자를 앞에선

정서적이고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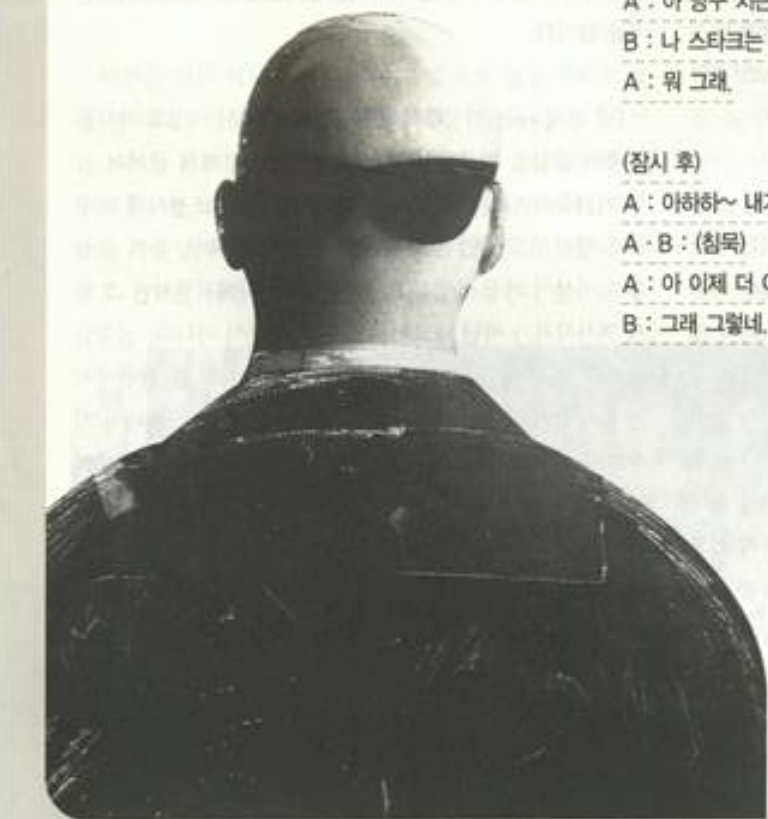
그러한 훈련과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때문에 연약함으로

보여질까봐 두려워한다.



여성들과 개인적이고 정서적 공유와
엄함이 있는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남자들과 관계 맺을 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남자들이 경쟁적이고
긴장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고,
내가 감정을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약해보이면 안된다고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것일까.
남자가 무서운 것일까—;

와 상대 남자의 관계 맺음의 한계의 결과일 뿐이다. '그'와 '나'는 서로 비개인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기쁨, 지지 등을 바라지도 실행하지도 않았던 결과로 파국을 맞았던 것이다.

결국 나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그 정도에 그칠 뿐'이라는 한계를 긋고 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자 동기나 선배였다. 여자들은 그들끼리 서로 크고 작은 일상에 관한 수다를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칭찬을 하며 감정을 보이고 공유했다. 그것은 남자친구들과 있을 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이며, 그저 여자들은 그런 것이려니 하는 멀리서 지켜보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점점 그 광경에 익숙해지고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나는 경청하였고, 점점 나도 그들처럼 일상을 같이 얘기하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감정을 드러내며 정서적 유대감과 지지를 바쳤다. 때로는 남자답지 않게

(?) 질질 짜기도 했다. 그렇게 여자들과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나는 '남자들은 정서적이지 않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는 공식을 캔 사람인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정말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무관심과 억압에 놓여 있을까. 어느 베스트셀러에서 나온 것처럼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길 원할까.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리다. 남자들은 남자들 앞에선 정서적이고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훈련과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때문에 연약함으로 보여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여자나 애인을 두고서는 조금 달라진다. 그동안 억제 되었던 감정적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는 변신한다. 때로는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예교를 보이기도 하고(본인이 직접 신촌 티XX 존에서 직접 확인), 말문을 열고 보통 때 보다 수다스러워지고, 쇼핑도 잘 다니고, 차도 잘 마시러 다닌다. 때로는 오버하여서 자신의 감정과 속내까지 다 알아주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열라 빠지거나(빠지는 게 남성답지 않게 여겨지면) 화를 낸다.

이렇게 남자들은 강하고 독립적(사실 뭐가 강하고 독립적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어쨌건 남자는 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문 받는다)인 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적-단적으로 애인과의 관계-인 수준에서는 정서적인 지지를 요구한다. 여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일부 남성은 정서적인 지지를 요구했는데 부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남자들은 남자들 사이에서/겉으로는 비정서적이고 강함을 요구 받으면서, 여자와의 관계에서/내적으로는 정서적 의존을 한다.

나도 사실 이러한 이중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여성들과 수다스럽게 얘기하다가도 남자와 같이 있으면, 다시 침묵하고 어색해진다. 그 풍부했던 감정은 다시 사그라지고 만다. 여성들과 개인적이고 정

서적 공유와 엄함이 있는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남자와 관계 맺을 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남자들이 경쟁적이고 긴장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고, 내가 감정을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약해보이면 안된다고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것일까. 남자가 무서운 것일까—;

그래도 요즘은 남자친구들과 일상을 나누고 정서적인 교감의 경험을 넓혀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다. 힘들어 할 때 서로 안아 주고도 싶고, 손도 꼭 잡아주고 싶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나 스스로 남자들의 관계 맺음에 있어 경쟁이나 서로 우위의 서려는 관계나 비개인적인 관심사로 얽혀지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개인적 관심과 정서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관계로 풍부해졌으면 한다. 그래야 소위 여성에 대한 정서적 착취를 행하는 남자의 이중성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해해해~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싶으면 서 독립적인 채 하기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지만, 종종 손 붙잡고 가는 남자끼리와 지하철에서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어 잠들어 있는 남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한 것은 좀 오버일까?



나의 변태선생 이야기

글 이갈 (즐거운 페미니스트)



고등학교 때 내가 활동했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대부분의 여고에 존재하는 인기남 중 하나였다. 워낙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선생님치고는 애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라 한 반에 한 두 명씩은 수업시간마다 음료수를 올려두는 골수팬이 있을 정도의 인기를 구가했으며 동아리 부원들도 꽤나 따르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1학년 초창기에는 2,3학년 언니들이 선생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얼마나 친하고 좋으면 저렇게 부를까라고 생각하며 나도 얼른 친해져야지라는 고등학생다운 착한 마음을 먹기도 했다. 그렇게 그 선생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친절하며 존경받는, 우리 동아리원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하복을 입기 시작하는 여름이 되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반팔 블라우스를 입은 친구의 팔 안쪽을 만졌다. 옆자리로 와서 어깨를 감싸고 이야기를 했다. 복도에서 아는 언니의 컵볼의 만지고 지나갔다... 수많은 소문이 1학년 교실에 돌았다. 그것이 어떤 상징인지, 그 선생님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었고 금새 그 선생 변태란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애들 사이에 오르내렸다.

내가 그렇게 좋게 알고 있었던 '우리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믿기 싫었고, 웬지 그 선생님 욕이 곧 우리 동아리 험담인 것만 같아서 더 인정하기가 싫었다. 그런 소문 속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동아리방 앞에서 야릇한 표정의 선생님과 땀살의 팔뚝을 그의 손에 잡힌 채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함께 걸어오던 2학년 선배언니를 만났다. 지금도 또렷히 기억나는 그 날의 그 장면은, 당시 나에게 뭐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찜찜한 어떤 기분을 안겨다 주었다. 그 이후로 나도 친구들의 험담에 열심히 가세하여 그 변태 선생 욕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변태라 부를만한 선생은 그 말고도 수도북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 뒤에서 "아~ 다리 미끈하다. 잘 빠졌네"라고 눈을 아래위로 굴리던 영어 선생, 내 친구에게 "옆에 앉아서 곱게 술 한잔 따라봐라" 했던 체육 선생, 늘 애들에게 호박이니 매주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집은 어떻게 갈래"라고 하던 어느 선생..

4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그들이 나에게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과 말들을 성폭력이었다고 말한다. 그 때 그 시절, 우리에게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나의 기분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언어도, 그것을 저지할 만한 어떤 힘도(여기에는 어떻게 선생님에게 감히...라는 권력관계가 힘을 발휘한다) 없었다. 그저 애들끼리 뒤에서 욕을 해대는 것 이외에는, 나중에 들은 바로는 2,3학년들 사이에서는 어떤 선생이 변태며, 어떤 선생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동아리 선배들과는 왜 그런 이야기들 단 한번도 나누지 못했을까. 아마 선배들도 나와 비슷하게 믿기 싫었거나 그것이 꼭 동아리 흥인 것만 같았을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 누구한테 그러는 거 봤다는 이야기는 잘 돌아도 나한테 그랬다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두운 밤, 으스스한 골목길, 토각토각 구두 소리를 따라 오는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 9시 뉴스의 사건과 사고에나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 개수 없는 사람이나 나쁜 놈에게 걸려서 당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래서 나의 경험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절그러운 이야기 그것이 고등학교 시절 내 국어사전에 있던 성폭력의 개념이었다.

술자리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한 가벼운 접촉, 재미 있자고 하는 게임,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한 마디... 성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내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까탈스러워서 혹은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내가 친구들과 변태 선생 이야기를 공유했던 것처럼, 자신의 불편했던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에서 성폭력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시작된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특별한 목소리는 분명 큰 울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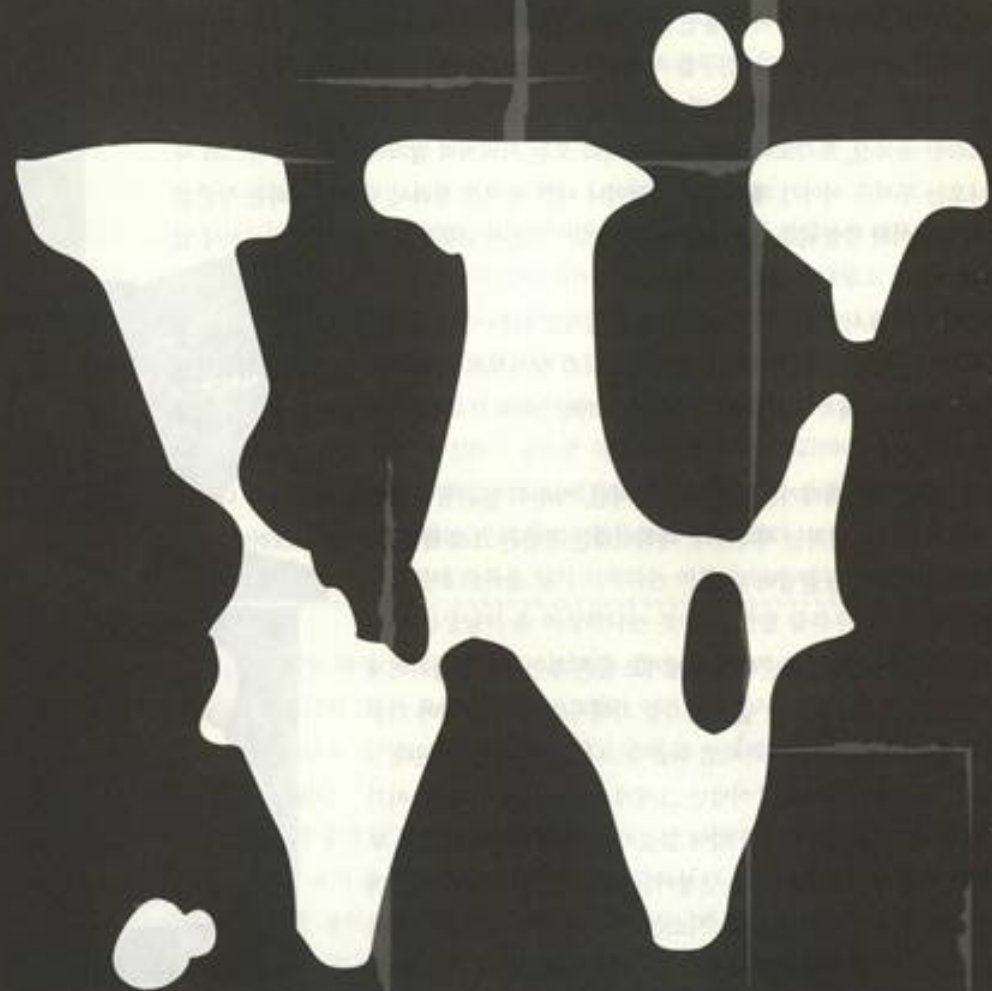
성폭력은 만날까 무서운 변태,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무언가로 규정지어져서는 안 된다. 성폭력 이야기만 나오면 웬지 남자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나를 성폭력범 취급하느냐고 말해서도 안 된다.

고등학교 때는 '남성'이자 '선생님'이었던 그에게 '여성'이면서 '학생'이기까지 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뭇다마 밖에 없었지만, 성적 차이에 기반한 모든 불쾌한 행위와 언사들에 대해서는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적할 수 있으며 적절한 사과를 받아야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잘못했다면 사과해야 하며 진지하게 자신이 부족했음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래, 이것은 기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코너에서 앞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애초에 성폭력에 대해 참신하고 재미난 글을 써줄 것을 주문 받았다. 통념상 오인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치 있게 풀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재치 있더라도 분명 진중하고 진지해야 할 코너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다소 딱딱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 가야할 것들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다. 바라건대 당신과 나의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이 이 지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술자리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한 가벼운 접촉, 재미 있자고 하는 게임,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한 마디... 성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내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까탈스러워서 혹은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우주인어 전설
space mermaid

- LIMHERA

호기심 많은 우주 인어는 오늘도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도 그녀의 왕성한 호기심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결국 책을 덮고 작기만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멋진 왕자를 만나고 싶어.



잠을 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왕자의 우주복이 별로 멋지지 않지만 그건 작가의 게으름 때문이겠지요.



우주 언어도 왕자와 같은 다리를 가지고 살아졌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기로 이름난 우주마녀를 찾아가 목소리를 주고 다리를 얻었습니다.
우주마녀는 ASMR인간 충고를 해주는 군요. "목소리를 주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믿지는 마라. 넌 목소리 대신 새로운 인생을 얻었을 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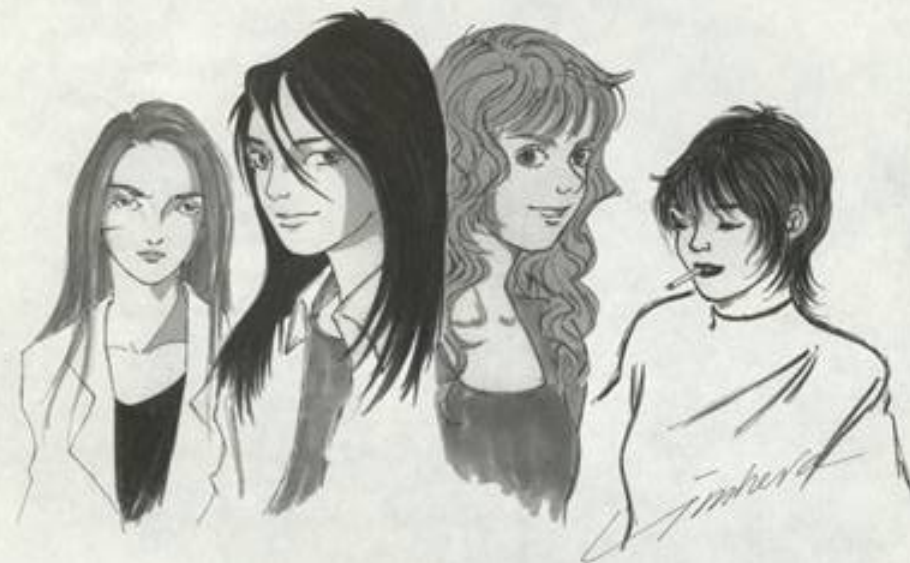
우주마녀의 충고인 충고를 고민해볼 겨를도 없이 당당하게 들어선 우주선 안에는
왕자는 없고 이미 늙은 남아빠들만 가득합니다.
그녀가 멋진 왕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기계인형이었습니다.



이제사야 우주 언어는 정말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엔 멋진 왕자 말고도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당신은 무엇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류가 두려워하던 3차대전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다.
전세계 인구가 1/5로 줄어들고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을 위한 노동력은
인간 복제와 Baby Factory에 의존하는 멀지 않은 미래.
자궁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진인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나, 리카, 루, 리아의 만남과 이별.
이것은 내 딸들의 이야기이고 어머니들의 이야기이다

LIMHERA

작가 프로필 :

찍어진 50, 찢러도 피 한방울 안나오는 못된
성격, 암울한 백수처녀, 돈 안되는 작품 다수...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과학은
생활이며 신앙이다. 과학이 더이상 신비롭지도 멋지지도 않은
신세계에서, 여성들은 과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가 내게는 언제나 화두였다.

한때 직업으로서 과학자를 꿈꾸던 나로서는 이런 이야기
가 결코 '공상과학' 일수 없었다. 1970년대의 수많은 여성 공
상 과학 소설가들이 다루었던 이야기들은 지금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더욱 문명화될수록,
계급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미래로 흐를수록 여성은 또 하나의 인종
이자, 계급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결
코 오버액션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어 보려고 한다. SF 작품에 기대하는 출
중한 미래적인 그림들은 어쩌면 미래가 아니다. 미래는 더욱
잔인하고 처절한 현실이다.

나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미없는 작가가 되
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만화를 통해 '멋진 신세계'를 꿈꾸
는 당신의 상상력이 산산조각나기를 기대한다.

3월호

Day Dream

재미있게 보셨나요?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Day Dream 을 함께 만들
매체편집위원회를 모집합니다.

3월호 Day Dream 을 다 보신 후
나도 함께 이런 잡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에이~내가 만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체편집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또 여성주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Day Dream 을 만들어가요!

feminist@yonsei.ac.kr

또는 2123-3645로 연락하시거나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을 찾아 주세요.

